

#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겨울철 화재 '주범'

### 최근 5년간 3명 사상·재산피해 173억

### "주의사항 숙지...작은 관심이 사고예방"

겨울철 난방용품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불감증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춥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보일러·전기장판·히터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겨울철(11월~2월) 계절기

기로 인한 화재사고는 11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34건, 2015년 18건, 2016년 26건, 2017년 30건, 2018년 22건 등이다. 겨울철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매년 평균 20건 이상씩 발생한 셈이다.

화재발생원인은 전기담요·방석이나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히터·스토브 26건, 가정용 보일러 18건, 난로 11건 등이 뒤를 이었

다. 이러한 화재로 지난 5년간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다쳤으며 173억 2,897만 9,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 지난 3년간 355건의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15억 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난방기구 중 화목보일러 55건, 가정용 보일러 33건, 난로 28건, 전기장판 26건, 전기히터 16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난로·

온풍기·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난방기구로 인한 화재 대부분이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사용 전 기기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기장판을 이불처럼 접어서 보관할 경우 내부열선이 파손돼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돼 있는지 확인하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전열기 주변에 옷·이불·소파 등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가정용 보일러 배기구 불량 등으로 내부연소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기 연통 이음새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화목 보일러의 경우 나무껍질 등을 주변에 쌓아 두면 안 되며,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가연물에 불티가 옮겨 붙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난방기구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 오늘의 날씨

장성	-3~7	흑산도	4~8
담양	-3~7	구례	-4~6
화순	-3~7	곡성	-5~6
영광	-3~6	완도	1~9
함평	-2~8	강진	-2~8
무안	-1~7	장흥	-3~8
영암	-2~7	해남	-2~7
진도	1~7	고흥	-3~8
신안	0~8	보성	-4~7

일출 07:32 일몰 17:21  
월출 11:44 월몰 22:37

목포	만조 05:14 17:56	여수	만조 12:37 ---
	간조 10:34 23:24		간조 05:55 18:58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윤장현, 검찰 조서 서명 거부

### 채용청탁 인정·선거법 위반 혐의는 극구 부인

### 변호인 "만들어진 틀에 맞추려는 의도된 수사"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의 '불공정 조사'를 이유로 이틀간 진행된 고강도 수사의 작성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미리 짜 놓은 '수사 프레임'에 검찰이 억지로 피를 맞추고 있다는 게 윤 전 시장측의 주장이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0시 20분께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조사 과정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 10월 14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1일 오전 11시에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조사에서 윤 전 시장은 구속기소된 김모씨

의 자녀 채용청탁과 관련한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는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서명 거부에 대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법정에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효과 뿐이다"며 "윤 전 시장측의 변호 전략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말에 속아 지난해 12월부



조선대 혁신토론회 12일 오후 조선대에서 열린 '조선대학교 혁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이 미래 사회 대비 대학 혁신의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김씨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광주 모 학교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돈을 빌려준 행위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반면, 윤 전 시장은 김씨로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훈외자를 도와 달라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며 공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시장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6·13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 13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소여부를 놓고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민 기자

## "죽을 죄 지었다...수사기관 회유·협박"

### 가짜 권양숙, 윤 전 시장에게 문자메시지 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49)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공천 쪽으로 몰려고 회유·협

박을 했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시장 측은 지난 11일 밤 김씨가 경찰조사를 받던 시기인 지난해 5월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윤 전 시장이 일방적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보낸 문자내용은 '죽을 죄를 지었다. 경찰과 검사는 시장님과 제가 공범이라고 몰고 있다' 등이며 '공천알선수재는 3년, 사기는 5년이 라고 잘 생각하라고 회유·협박한다'

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씨는 이어 '제가 잡혀갔을 때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공천대가 아니냐는 것이었고 저는 부인했다'며 '제가 조사 중 말했다는 것은 다 거짓이며, 윤 전 시장은 제게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입에서 나올 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님께서 전화를 바꾸셨으면 한다'며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회수·복구하면 몇가지 우려스러운 문자내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보낸 문자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사기꾼 말이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기자

## '조업일지 허위작성' 중국어선 나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고도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9시 50분께 신안군 흥도 남서쪽 38.9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88t 쌍대망 어선 A호 등 2척을 불발했다.

대한민국 EEZ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1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23t을 포획하고도 EEZ 외곽에서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다. /목포=김동균 기자

## 실종 50대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강진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남성이 실종신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오전 10시 46분께 강진군 칠량면 한 저수지에서 A씨(57)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혼자 살던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저수지 주변에서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외투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 구름도 쉬어가는 건강의 섬 완도

### 리조트 이용권 분양 회원모집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 빛 바다의 하모니 완도 퍼핀스베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천혜의 비경을 품은 프리미엄 오션뷰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거느린 해양 가족 별장, 완도 퍼핀스베이의 특별한 가치를 만나보세요!

Gold	Royal VIP
1,100만원 > 200만원 (VAT별도)	2,200만원 > 300만원 (VAT별도)
3년 - 무기명	4년 - 무기명
퍼플 / 레드 / 옐로우 / 블루 등	퍼플 / 레드 / 옐로우 / 블루 / 그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숙박권(주중 15매 + 주말 15매) 30매</li> <li>② 바베큐상품권(2만원권) 15매</li> <li>③ 조식상품권(5천원권) 20매</li> <li>④ 선상카페 커피교환권(6천원권) 20매</li> <li>⑤ 보드게임 + 오락실게임기 + 포켓볼 (1만원권) 20매</li> <li>⑥ 영화CGV 무료권 4매</li> <li>⑦ 오션상품권(25%) 10매</li> <li>⑧ 전국 연계 체인 1년 내내 회원가</li> <li>⑨ 골프 1년(주중 + 주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숙박권(주중 20매 + 주말 20매) 40매</li> <li>② 바베큐상품권(2만원권) 20매</li> <li>③ 조식상품권(5천원권) 25매</li> <li>④ 선상카페 커피교환권(6천원권) 25매</li> <li>⑤ 보드게임 + 오락실게임기 + 포켓볼 (1만원권) 20매</li> <li>⑥ 영화CGV 무료권 4매</li> <li>⑦ 오션상품권(25%) 10매</li> <li>⑧ 전국 연계 체인 1년 내내 회원가</li> <li>⑨ 골프 2년(주중 + 주말)</li> </ul>

\* 광주·전남 골프장 20여 곳, 제주 15여 곳 제휴

### 퍼핀스베이 제휴 펜션 및 리조트

- 경기 청명 애플룻지 • 강원 설악포유리조트, 레이크오션리조트
- 충청 비에스투어앤리조트, 힐링앤사조리조트 • 전라 무주 스테이

### 퍼핀스베이 룸 타입

- 퍼플(13형) / 레드(21형) / 블루(27형) / 옐로우(27형) / 그린(38형)
- 바다를 바라보며 삶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락한 객실과 다양한 부대시설은 당신의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립니다.

### 부대시설

- 식당 / 카페 / 선상카페 / 바베큐 / 수영장 / 포켓볼 / 보드게임 / 해양스포츠 / 매점 등
- 퍼핀스베이의 편리하고 다양한 부대시설은 보다 나은 힐링을 제공해 드립니다.



※ 팀장 및 영업사원 모집

가입문의

☎ 062)514-5551